

■ 올림픽 남자축구 1/8지역 최종예선 조편성

B조: 한국·바레인·시리아·우즈베키스탄

베어벡호 '최상의 조'...본선행 '패칭'

베어벡호가 2008 베이징 올림픽 남자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조 편성에서 최상의 시나리오를 받아들였다. 한국은 13일(한국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아시아축구연맹(AFC) 본부에서 열린 올림픽 본선 조 추첨에서 바레인, 시리아,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B조에 편성됐다.

우즈베키스탄과 홈경기 시작도 행운 호주·사우디 등 꺾끄러운 상대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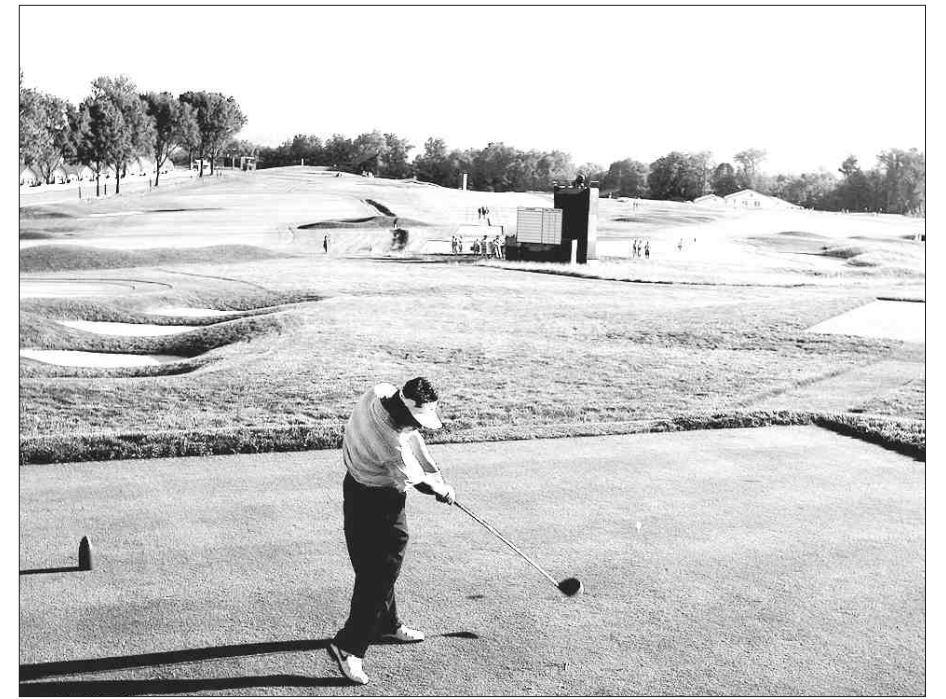
	A조	B조	C조
1	이라크	한국	일본
2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3	북한	시리아	카타르
4	호주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일단 강호 사우디 아라비아를 비롯해 호주, 북한 등 꺾끄러운 상대를 피한 최상의 조편성으로, 6회 연속(총 7회) 올림픽 본선 진출 전망을 밝게 했다는 평가다. 신문선 한국축구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한국로서는 최종예선에 오른 팀 중 비교적 약체들이 포함된 잘 짜인 조편성"이라 말했고, 박문성 SBS 해설위원도 "상대적으로 수월한 조편성이다. 호주와 사우디를 피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0으로 두 차례 맞대결 모두 승리했던 우즈베키스탄과 다시 만나게 된 것도 한국으로서는 행운이다. 게다가 최종예선을 우즈베키스탄과 홈 경기로 시작하는 것도 호재다. 바레인은 아시아지역 2차 예선에서 4승 2패(17득점 11실점)로 A조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쿠웨이트 원정에서 0-3으로 무릎을 꿇고, 카타르 원정에서도 0-4로 대패하는 등 들쭉날쭉한 전력을 보여줬다. 시리아는 2차 예선 B조에서 일본(6전 전승)에 이어 2위(3승1무2패, 9득점 7실점)로 최종예선에 올랐다. 일본과 두 차례 맞대결에서 0-3(원정), 0-2(홈)로 패했고, 말레이시아와 원정경기에서는 득점 없이 0-0으로 비겼다.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에 이어 F조 2위(4승2패, 8득점 4실점)로 2차 예선을 통과했다.

역대 올림픽 대표팀 간 상대 전적도 한국의 베이징행에 힘을 실어준다. 바레인과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최종예선에서 처음 만나 1-0으로 이긴 것을 시작으로 세 번 싸워 모두 이겼다.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도 이번 2차 예선에서 두 번 모두 승리했다. 시리아와는 아직 맞붙은 적이 없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최경주가 13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오크몬트골프장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US오픈 연습라운드도중 12번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PGA US오픈 오늘 밤 개막

8번 홀 공략 골머리

대회 사상 가장 긴 288야드 파3 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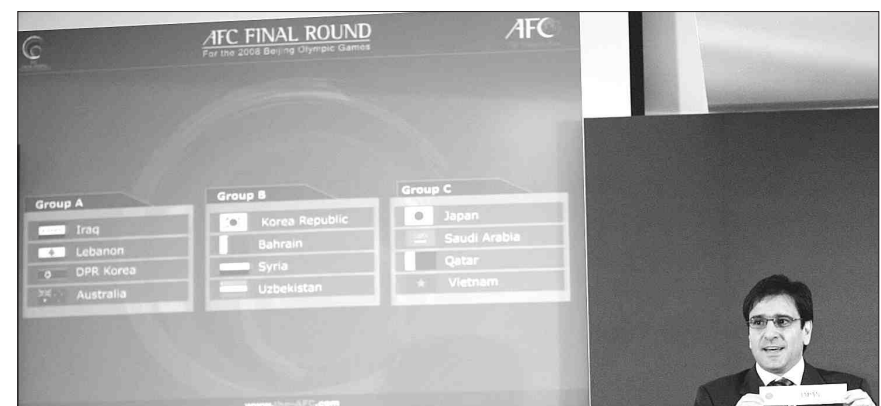
14일(한국시간) 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근교의 오크몬트골프장에서 개막하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US오픈에 출전한 우즈를 비롯한 세계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선수들이 8번홀 공략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8번홀은 미국골프협회(USGA)가 이번 대회를 앞두고 288야드로 늘려 놓아 메이저 대회 사상 가장 긴 파3 홀이 됐다. 티박스에서 그린 중앙까지 거리가 288야드지만 핀을 그린 뒤쪽에 꽂아 놓으면 무려 300야드를 훌쩍 넘긴다. 이 홀은 처음부터 긴 홀이 아니었다. 오크

몬트 골프장이 처음 US오픈을 유치한 1927년에는 거리가 252야드였고 이후 여섯차례 메이저대회를 치렀지만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진정 누가 뛰어난 선수인지 테스트해야 한다"는 USGA의 철학 아래 8번홀은 '괴물'로 바뀌었다. 12일과 13일 열린 연습라운드에서 장타자 몇명만이 이 홀을 공략할 때 아이언을 사용했고 대부분은 3번 우드 또는 하이브리드 클럽을 잡았다. 일부는 드라이버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어느 클럽을 잡든 그린에 10~30야드 못 치는 곳에 공이 떨어졌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조차도 "3번 우드로 티샷을 했는데 뒷바람이 불더라도 그린 앞 가장자리까지 밖에 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흠서 전승, 원정선 최소 1승해야"

■ 한국 본선행 전략

"올림픽 본선행 티켓의 향방은 원정경기 승리에 달려있다." 팀 베어벡 축구대표팀 감독은 2008 베이징올림픽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조 편성 결과에 대해 "흠서에서 모두 이기고 원정경기에서 최소한 1승을 따내 조 1위를 차지해야 한다"며 원정승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아시아축구연맹(AFC) 본부에서 열린 베이징올림픽 아시아 최종예선 조 추첨식에서 카를로 노라 AFC 경기 담당관이 일본의 추첨용지를 펼쳐보이고 있다. /AP=연합뉴스

'A3 챔피언스컵 2007' 관전을 위해 중국 산둥성 지난에 머물고 있는 베어벡 감독은 13일 오후 대한축구협회와 통화에서 "이미 최종예선에 진출한 모든 국가가 꺾끄러우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어벡 감독은 올림픽 본선진출의 키워드로 '원정경기 승리'를 내세웠다. 함께 B조에 속한 우즈베키스탄, 바레

인, 시리아에 대한 평가에 대해 베어벡 감독은 "우즈베크는 이미 2차 예선에서 두 차례 경기를 치러봐서 전력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상대도 우리를 잘 알고 있는 만큼 원정경기도 힘든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바레인에 대해 "2차 예선에서 카타르나 쿠웨이트를 상대로 많은 골을 넣었다는 것 외에는 다른 정보들이 충분하지 않다"며 "남은 기간 정보수집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설명했다.

■ 최종 예선에선... 12개팀 3개조 조 1위만 생존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축구 아시아 최종예선은 각 조에서 오로지 한 팀만이 살아남는 '4대 1'의 생존 경쟁이다. 베어벡호는 8월22일부터 모두 6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이날 우즈베키스탄과 홈에서 치를 최종예선 1차전 직전 대한축구협회 소집 규정에 따라 다시 소집된다. 12개 팀이 A, B, C 3개 조로 나뉘어 치러지는 이번 최종예선 방식은 2차 예선과 똑같다. 같은 조 상대 세 팀 홈앤드어웨이로 두 경기씩 하게 된다. 한국은 홈(8월22일, 우즈베키스탄), 원정(9월8일, 바레인), 홈(9월12일, 시리아), 원정(10월17일, 시리아), 원정(11월17일, 우즈베키스탄), 홈(11월21일, 바레인) 순의 경기 일정이다.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축구 경기의 순위 산정 방식에 따라 승점과 조 전체 골득실, 다득점을 먼저 따진다.

"김영현 영입하고 싶다"

K-1 주최사 FEG 밝혀

종합격투기 K-1 주최사 FEG가 민속씨름 전하장사 출신 김영현(31)을 영입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나타냈다. FEG 한국지사 양명규 프로모터는 13일 "김영현과 조건만 맞다면 이번 달 내로 계약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면서 "FEG 본부에서도 그를 영입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종합격투기 진출을 목표로 두 달 전부터 입식 타격 위주 훈련을 해 온 김영현은 K-1과 미국 종합격투기 UFC 등 3~4개 격투기 단체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프로모터는 "김영현의 경우 한국에서 인지도가 높고 훈련에 임하는 자세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 14일(목)
- ▲제14회 무등기 전국고교 야구대회 (12:30-KBSN Sports)
 - ▲메이저리그<클리블랜드-플로리다> (07:55-Xports), <뉴욕M-LA다저스> (11:00-Xports)
 - ▲아시아 트라이애슬론 선수권대회(12:40-MBC)
 - ▲KBS배 육상대회(14:50-KBS2)
 - ▲제8회 중광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16:00-KBSN Sports)
 - ▲일본 프로야구<오릭스-요미우리>(18:00-MBC ESPN)
 - ▲프로야구<LG-현대>(18:00-KBSN Sports), <두산-롯데>(18:20-SBS스포츠)

MODISH 기품과 중후함으로 완성되는 엔틱의 명품

모디쉬갤러리 Sale

www.modishgallery.co.kr

모디쉬갤러리 오픈 세일 이벤트

30% 오페라 침실세트
장롱, 화장대, 침대(메트리스별도), 협탁

몽블랑 2+2 가족쇼파 (5조환정) 2,900,000 → 1,400,000원

아그네스 2+2 가족쇼파 (5조환정) 3,250,000 → 1,600,000원

황옥 4인 대리석식탁 (5조환정) 1,300,000 → 690,000원

엔틱전환기 (선착순 20명) → 39,000원

미가엘 거실장식세트

Open기념 황토침실대, 장수온돌침대 한정판매

HS-6720 비토 1,990,000원 (5조환정판매)

JSD-비토 1,470,000원 (5조환정판매)

미가엘 5인서랍장, 아시아 2.2 소파, 미가엘 화장대, 오메가 대리석 식탁세트

모디쉬갤러리 광주점: 0621252-3001~2 / 금호일드 7층: 0621350-8764

KARCHER 독일가치 특별기획전

... 적외선 감지 지능형 로봇청소기

이제 청소는 **카처 로보크리너**에게 맡기고 **생활의 여유**를 즐기세요

- 혼자서 청소하고, 충전하고, 쓰레기까지 비웁니다. (충전시간:10분 1시간사용, 타사제품:1시간사용 2~3시간 충전)
- 바닥은 물론 카펫, 방과방사이, 문턱, 침대 밑 청소도 문제 없습니다.
- 흡입력, 회차소음, 쓰레기수집함, 충전제거동, 문턱통과, 추락방지 최고성능인정 (2006년 10월 소비자보호원 조사결과-시중 판매중인 12개사 제품)

카처는 수십년간 크리닝시스템분야에서 세계적인 명품브랜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계 70개국 우수디자인상 수상

Hit RC 3000 로봇청소기, K 55 전기빗자루, VR 6100 전동청소기, SC 562 소형 스팀청소기, SC 1122 디퓨저 스팀청소기, SC 1602 디퓨저 스팀청소기

문의전화 062-655-1022 http://blog.daum.net/karcher 시/군 대리점 모집중